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의 추진 현황

승 준 호*

1.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의 개요

1.1.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2000년대 후반 식량위기의 여파로 아세안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비상 쌀 비축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농림장관이 서명한 협정에 의해 아세안+3[1] 비상 쌀 비축제도(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가 마련되었다.

APTERR는 정상적인 무역을 왜곡하지 않고 회원국 간의 식량 안보를 도모하며, 빈곤 및 영양실조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13개국이 재난 등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쌀을 비축하고, 회원국 간 인도적지원을 통한 역내 식량안보 실현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쌀 75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만 9,000톤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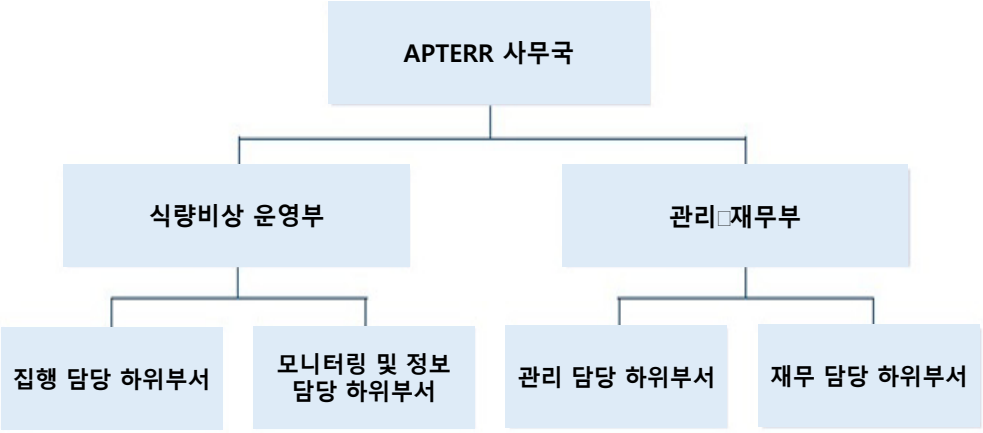
각 회원국의 대표 1명으로 구성된 APTERR 위원회는 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APTERR 위원회는 태국 방콕의 까셋갓 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APTERR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PTERR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임명한 총책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의 활동 및 실행 프로그램은 위원회에 보고된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hseung@krei.re.kr).
본고는 APTERR 홈페이지, 아시아개발은행,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1)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의미함.

〈그림 1〉 APTERR 사무국의 조직 구조



자료: APTERR, APTERR Secretariat's organisational chart. (https://www.apterr.org/organisation/apterr-mechanism) (검색일:2023.8.15.)

(참고자료) ASEAN+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문(요약)[2]
서문 : 회원국 현황,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 설립목적을 명시 제1조(용어 정의) :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비상 쌀 비축 약정물량, 비상사태 등 용어 정의 제2조(일반조항) : APTERR 당사국이 식량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반사항 및 본 협정문이 기존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 제3조(APTERR 설립) : 비상수요에 대처하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관련된 사업은 정상적인 국제 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음. 제4조(집행) : APTERR에 비축된 쌀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보충은 이사회(Council)가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 제5조(쌀 정보 교환) : 효율적인 사업이행을 위해 APTERR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의 정책관련 정보 및 쌀 비축제, 식량안보 정보 공유 제6조(APTERR 기금의 설립) : APTERR 당사국은 APTERR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기금(Endowment Fund)과 운영비 기금을 부담 제7조(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이사회) : 이사회는 각 APTERR 당사국의 대표 1명으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알파벳 순서대로 맡음. 제8조(APTERR 사무국) : 본 사업을 지원할 APTERR 사무국 설립 제9조(분쟁 해결) : 상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또는 당사국간 상의하여 조정 하되 해결되지 않을 시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음. 제10조(마지막 조항) : 본 협정문은 서명하고 아세안+3국의 비준, 승인 혹은 허가를 조건으로 함. 첨부 : 1)각국의 약정물량, 2)기금 분담금 현황, 3) 이사회 위임사항

2) 김정호 외(2018) 재인용

APTERR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기금은 장기 재정 지원을 위한 기부기금(Endowment Fund)과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비 기금으로 구성된다. 기부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각각 100만 달러, 아세안 10개국이 약 300만 달러를 거출하였고,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연간 운영비 기금은 30만 달러 규모이며,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각각 7만 5,000달러, 아세안 10개국이 총 7만 4,0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과 한·중·일 대표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운영비 기여 사항 및 2022년 이후 5개년 단위 기여 방식을 명시한 협정문 개정의정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 연간분담금 기간(2018~2022년) 연장 및 국가별 기금 분담금 명시에 관한 것이며, 한국은 5년간 매년 7만 5,000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표 1〉 국가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달러

구분		기부기금	연간 운영비 기금
플러스 3개국	한국	1,000,000	75,000
	중국	1,000,000	75,000
	일본	1,000,000	75,000
아세안 회원국	태국	107,500	8,000
	베트남	107,500	8,000
	미얀마	83,000	6,000
	필리핀	107,500	8,000
	인도네시아	107,500	8,000
	말레이시아	107,500	8,000
	싱가폴	107,500	8,000
	라오스	83,000	6,000
	브루나이	107,500	8,000
	캄보디아	83,000	6,000
합계		4,001,500	299,000

자료: Teng, P. S. & Darvin, B. A. C.(2019) 재인용

1.2.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의 경과

APTERR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아세안 국가들은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제(ASEAN Food Security Reserve: AFSR)'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비상 쌀 비축(ASEAN Emergency Rice Reserve, AERR)' 협약에 서명하고 8만 7,000톤의 쌀을 비축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식량비축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었지만, 실제 비축이나 협력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2001년부터 매년 농림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과 한·중·일의 농업협력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비상시의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EAERR)'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EAERR 시범사업은 비축량이 78만 7,00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회원국의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감독하에 태국에 설치된 사무국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세안+3 농림장관은 시범사업을 상시체제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2월 EAERR 시범사업을 종료했다.

이어서 APTERR 협정이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체결되었고, 회원국들의 비준 후 2012년 7월 12일 발효되었다. 2013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1차 APTERR 위원회가 열리면서 APTERR는 상설 기구로 거듭났다. 한편, 2013년 3월 29일에는 방콕에서 APTERR 사무국이 공식 출범하였다. 2016년 8월 6일 태국 국회가 APTERR 사무국 운영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사무국은 태국법에 의해 법적인 성격을 부여받았다.

〈표 2〉 APTERR 설립까지의 주요 이정표(1979~2013)

구 분	내용
1979년	1979년 아세안 식량안보비축(ASEAN Food Security Reserve: AFSR) 협정에 의해 아세안 비상 쌀 비축(ASEAN Emergency Rice Reserve: AERR) 설립
2002년	제2차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서 비상 쌀 비축 확대 개편 승인
2004년	2004~2010년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EAERR) 시범 사업 실시
2009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 9차 AMAF+3 회의에서 ASEAN+3 비상 쌀 비축의 영구 계획 승인
2010년	2010년 2월 28일 EAERR 시범사업 종료, 2010년 3월 1일 APTERR 준비단계 시작
2011년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 11차 ASEAN+3 농림장관 회의에서 APTERR 협정 체결
2012년	2012년 7월 12일 APTERR 협정 발효
2013년	2013년 3월 28일~29일 APTERR 위원회 1차 회의 개최, 3월 29일 APTERR 사무국 공식 출범

자료: Teng, P. S. & Darvin, B. A. C.(2019) 재인용

2. 비축 및 방출 프로그램

APTERR 협정의 운영 방식과 지원 프로그램은 약정(Earmark) 및 비축(stockpile) 방식에 따라 3가지 형태(Tier 1, Tier 2, Tier 3)로 운영되고 있다. 약정(Earmark) 방식은 공여국이 소유권을 보유하되 비상시에 원조하는 방식이며, 기여(Stockpile) 방식은 APTERR 사무국에 쌀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Tier 1은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지정된 비상 쌀 비축량을 방출하는 방식이다. Tier 1은 쌀의 수량과 등급, 가격 책정 방법, 지불 및 배송 조건, 공급 국가와 수취 국가 간의 기타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선도계약으로 공식화된다. 수취국의 비상사태 발생시, 공급국에서 쌀을 인도할 때에는 국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물량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부족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Tier 2는 Tier 1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정된 비상 쌀 비축량을 방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급 국가와 수취 국가 간의 현장 계약에 따른다. 가격책정은 Tier 1과 유사하며 현금 또는 관련 국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장기차관이나 보조금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Tier 3은 지역의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빈곤 완화 및 영양실조 퇴치 등 심각한 비상사태,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해 비축된 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Tier 3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비상시, Tier 1, Tier 2에 비해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

〈표 3〉 APTERR 운영방식 및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약정(Earmark)		기여(Stockpile)
	티어 1	티어 2	티어 3
방출물량	약정물량	약정물량	비약정물량
사전계약 여부	선도계약	비선도계약	비선도계약
지원시기	재난 등 비상사태	재난 등 비상사태	재난 등 비상사태
지원방법	상업적거래(현금)	현금, 장기차관	무상지원
약정물량 소유권	공여국	공여국	애프터 위원회
거래가격	국제가격	국제가격	무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2.20.).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MTkzMCUyRmFydGNsVmIldy5kbyUzRg%3D%3D)(검색일:2023.8.15.)

APTERR 회원국은 재난 등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별 재고 물량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비축을 위한 쌀은 국제 식품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약정된 쌀 비축량은 APTERR 회원국의 비상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목적으로 해당국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정하고 통제하는 수량이다. 약정 물량은 아세안 10개국이 8만 7,000톤, 한국·중국·일본 3국이 70만 톤으로 총 78만 7,000톤이며, 우리나라는 15만 톤을 약정하였다. APTERR 회원국별 총 약정 물량은 표 4와 같다.

〈표 4〉 국가별 APTERR 약정 현황

구분		물량(1,000톤)	비중(%)
플러스 3개국	한국	150	19.06
	중국	300	38.12
	일본	250	31.77
아세안 회원국	태국	15	1.91
	베트남	14	1.78
	미얀마	14	1.78
	필리핀	12	1.52
	인도네시아	12	1.52
	말레이시아	6	0.76
	싱가폴	5	0.64
	라오스	3	0.38
	브루나이	3	0.38
	캄보디아	3	0.38
합계		787	100.00

자료: APTERR, APTERR Stockpiles. (https://www.apterr.org/how-we-work/apterr-stockpiles)(검색일: 2023.8.15.)

3.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의 운영 현황

2022년 아세안 지역의 쌀 생산량은 약 1억 2,605만 톤으로 지역의 쌀 소비량 약 1억 689만 톤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아세안 지역의 주요 쌀 수출국은 베트남과 태국이며, 수출량은 베트남이 700만 톤, 태국이 600만 톤에 달한다. 이처럼 아세안 지역의 주요 식량인 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급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의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높은 국제 곡물 가격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국내 소비를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고, 주변 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출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할 경우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식량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농업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식량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표 5〉 2022년 아세안 국가의 쌀 수급 현황

단위: 1,000톤

구 분	공급량				수요량			
	이월재고	생산	수입	합계	국내소비	수출	기말재고	합계
아세안 전체	31,419	126,046	4,197	161,663	106,893	14,165	40,605	161,663
브루나이	23	3	33	58	34	-	24	58
캄보디아	5,826	7,027	-	12,853	4,211	830	7,812	12,853
인도네시아	1,232	36,044	29	37,305	34,941	3	2,361	37,305
라오스	205	2,446	26	2,676	2,258	24	394	2,676
말레이시아	-	1,476	915	2,392	2,317	75	-	2,392
미얀마	9,847	16,190	-	26,037	14,670	134	11,233	26,037
필리핀	2,457	13,293	2,000	17,750	15,100	-	2,650	17,750
싱가포르	-	-	389	389	291	99	-	389
태국	8,591	21,204	50	29,845	11,496	6,000	12,349	29,845
베트남	3,238	28,363	756	32,358	21,576	7,000	3,782	32,358

자료: AFSIS(2022) 재인용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서 EAERR 시범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의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쌀 지원이 이루어졌다. Tier 1에 의해 2010년 베트남은 1만 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가장 활발한 지원은 Tier 3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7년 동안 약 3,000톤의 쌀이 지원되었다.

〈표 6〉 2004~2010년 EAERR 프로젝트의 Tier 3 운영 내용

구 분	프로그램	수혜국	물량(톤)
2005년	빈곤 완화	라오스	13
2006년	홍수 피해 재활	인도네시아	200
2006년	화산 및 태풍 피해 재활	필리핀	930
2007년	홍수 피해 및 빈곤 완화	캄보디아	435
2008년	홍수 피해 재활	인도네시아	182
2008~2009년	사이클론 피해 재활	미얀마	320
2010년	태풍 피해 재활	라오스	347
2010년	홍수 및 태풍 피해 재활	필리핀	520

자료: Kim, K., & Plaza, P. P.(2018) 재인용

APTERR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Tier 3 프로그램을 통해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43건의 쌀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부된 쌀은 총 3만 2,008톤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7). 우리나라는 2017년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750톤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베트남에 1만 톤을 제공하였으며, 총 1만 9,000톤을 기부하였다. 일본은 같은 기간 24회에 걸쳐 약 7,000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8년 필리핀과 Tier 1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협력 각서에 서명하였고, 2021년에는 동 각서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다(농림수산성, 2023). 한편,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가 각각 5,000톤, 800톤, 350톤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 수혜국은 총 7개국으로 태풍 등의 피해가 빈번한 필리핀이 17회에 걸쳐 가장 많은 1만 1,782톤의 쌀을 지원받았으며, 베트남이 1만 톤, 미얀마 5,489톤 순으로 나타났다. Kim, K.(2021)은 아세안 국가들이 APTERR를 통해 미국, 호주, 브라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APTERR 발효 이후 지원국과 수혜국에서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표 8과 같다.

〈표 7〉 APTERR Tier 3 프로그램의 지원 및 수혜 현황(2012~2022년)

구분		물량(톤)	횟수
지원국	한국	19,000	16
	중국	800	1
	일본	6,858	24
	태국	5,000	1
	말레이시아	350	1
	합계	32,008	43
수혜국	미얀마	5,489	11
	라오스	3,125	6
	태국	50	1
	베트남	10,000	1
	캄보디아	1,362	6
	필리핀	11,782	17
	인도네시아	200	1
	합계	32,008	43

자료: APTERR, Statistic Data of APTERR Tier3 Activities. (https://www.apterr.org/how-we-work/apterroperationinformatiom/operational-information)(검색일:2023.8.15.)

〈표 8〉 APTERR 발효 이후 주요 활동 및 성과

구 분	주요 내용
2013년	11월, 슈퍼 태풍 욜란다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APTERR를 통해 필리핀에 50만 달러 상당의 비상 쌀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승인
2014년	5월,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회의 이후 APTER에 14,000톤의 쌀 기부 약속
2014년	11월, 제17차 ASEAN+3 정상회의가 미얀마 네피타우에서 개최, 일본의 아베 총리는 APTER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라오스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쌀 지원을 강조하며 "식품 가치사슬"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완화와 해제를 요청
2015년	4월, APTER 제3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의 작업 계획 및 예산 계획 실현 등 APTER 협정 이행 관련 문제 논의
2016년	5월 필리핀 카타르만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APTER Tier 3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 쌀 240톤 기부
2016년	8월, 캄보디아에서 장기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쌀 50톤 배포
2016년	10월, 캄보디아 2개 지역에 쌀 60톤 배포
2016년	11월, 태국의 벼 재배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한 APTERR 직원 현장 학습으로 쌀 종자 센터와 항구, 연구 센터 등 방문
2017년	7월 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쌀 검사 실시
2017년	9월, Tier 3 프로그램에 따른 250톤 쌀 검사 실시
2017년	11월, 미얀마 라카인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부한 쌀 267톤 쌀 전달
2018년	1월, 필리핀 국가식품청(The National Food Authority: NFA) 쌀 225톤 배포

구 분	주요 내용
2018년	1월, 한국이 기부한 쌀 178톤을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시민들에게 전달
2018년	2월 5일, 베트남에 전달된 쌀 700톤을 6개 지방에 배포
2018년	5월, 일본과 필리핀의 실험적인 Tier 1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회의가 필리핀 국가식품청에서 개최
2018년	3월, 일본 정부는 APTERR Tier 3 프로그램을 통해 쌀 225톤을 기부, 라오스 2개 지역 22,500명에게 배포
2018년	5월, 태풍 담레이로 인한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Tier 3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기증한 쌀 4,700톤 쌀을 배포
2018년	6월, 일본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라오스 주민들을 돕기 위해 Tier 3 프로그램을 통해 쌀 225톤 기부

자료: Kim, K.(2021) 재인용

과거 아세안 지역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국의 쌀 부족량은 EAERR/APTERR 및 자국내 비축량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EAERR/APTERR를 통한 실제 지원물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Teng, P. S. & Darvin, B. A. C., 2019). 예컨대, 필리핀은 2013년 태풍 피해로 약 49만 톤의 쌀이 부족하였고, 자국내 비축량은 35만 톤 수준이었으나, APTERR를 통한 지원물량은 6,730톤에 불과하였다(표 9).

〈표 9〉 아세안 지역 재해에 따른 EAERR/APTERR 주요지원 내용

구분	단위	인도네시아 지진 (2004)	미얀마 사이클론 (2008)	동일본 대지진 (2011)	필리핀 태풍 (2013)
총인구	백만 명	223.3	127.3	51.0	97.6
쌀생산량	천 톤	36,007	21,726	7,003	12,299
1인당 소비량	kg/년	126	129	43	119
재해 피해자수	백만 명	2.0	2.4	0.5	4.1
쌀 부족량	톤	352,464	310,584	21,665	489,704
EAERR/APTERR 약정물량	톤	787,000	787,000	787,000	787,000
자국내 비축량	톤	320,000	150,000	200,000	353,935
EAERR/APTERR 방출물량	톤	100	164	-	6,730

자료: Teng, P. S. & Darvin, B. A. C.(2019) 재인용

4. 맺음말

우리나라는 APTERR를 통해 2017년 750톤의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미얀마와 필리핀에 1,000톤 지원 등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식량부족, 재난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들에게 지원하였다. 이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전체 지원물량의 60% 수준으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재해 심화, 팬데믹과 전쟁 발생 등이 식량안보 확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식량가격 상승과 식량안보에 취약한 아세안 국가들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예상될 경우, APTERR를 통한 쌀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쌀로 한정되어 있는 APTERR의 대상 품목은 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밀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세안+3 회원국의 주요 소비 품목이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공통점이 있다. 최근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인한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 단행은 공급 차질을 초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라면, 빵 등 수입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한국은 2023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APTERR 연례회의에서 밀을 협력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회원국의 의견 및 제안을 취합하여 향후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3]. APTERR의 목적이 회원국 간 인도적지원을 통한 역내 식량안보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품목에 밀을 포함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아세안+3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APTERR(2023), Summary Report of the 11th Meeting of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Council.

참고 문헌

김정호·박문호·이경해. 2018,「식량원조사업 추진 효율화방안」. R36. (사) 환경농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20. 보도자료(2020.2.20.).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MTkzM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검색일:2023.8.15.)

농림수산성. 2023. ASEAN+3緊急米備蓄(APTERR)の概要.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seisan/boueki/higasi_asia/attach/pdf/index-13.pdf (검색일: 2023.8.15.)

AFSIS. 2022. *Global Food Crisis and Food Insecurity.* AFSIS. https://www.aptfsis.org/web-search?key=Global+Food+Crisis+and+Food+Insecurity (검색일: 2023.8.15.)

APTERR. 2023. Summary Report of the 11th Meeting of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Council. APTERR. https://www.apterr.org/images/MeetingReport/Summary_Report_of_the_11th_APTERR_Council_Meeting_003.pdf (검색일: 2023.8.15.)

Kim, K. 2021. *A study on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s a food security institution in East Asia*. Food and Life. 2021(3). 87-97.

Kim, K., & Plaza, P. P. 2018. Building Food Security in Asia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on Rice Reserves. ADB Institute.

Teng, P. S., & Darvin, B. A. C. 2019. *Regional Food Reserve Mechanisms: The Case of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FOOD RESERVES. 25.

참고사이트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https://www.apterr.org/)